

2024. 6. 21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2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	관광산업과장	김가영	02-2133-2770
	관광산업지원팀장	진기준	02-2133-2781
서울관광재단 관광산업본부	관광산업본부장	함경준	02-3788-8181
	관광자원개발팀장	금창훈	02-3788-8178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서울 의료관광 매력 몽골까지...울란바토르 의료관광설명회 성료

-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400여 명 관심 속 건강상담회·관광설명회 성료
- 서울 소재 병원 의료진, 몽골 현지 환자 204명 직접 대면해 건강상담 진행
- 한-몽 의료·관광업계 B2B 트래블마트 양일간 운영, 95건 상담실적 달성
- 지난해 서울 방문 몽골 의료관광객 약 1만 6천 명...전년 대비 60% 증가

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의료관광객 서울 유치 확대를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지난 12일(수)~13일(목) 양일간 개최한 <2024 울란바토르 건강상담회 및 의료관광설명회>를 성황리에 마쳤다.

이번 행사는 ‘서울에서의 새로운 건강한 삶(NEW HEALTHY LIFE IN SEOUL)’이라는 주제로 ▲건강상담회(B2C) ▲B2B 상담회 ▲서울 의료관광설명회가 진행되었으며, 서울 소재 병원과 몽골 의료관광업계 등 400여 명이 참가해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.

- 먼저 ‘건강상담회’에서는 서울 소재 병원 소속 의료진이 몽골 현지 환자들을 직접 대면해 건강상담을 진행했고, 양일간 204명의 상담실적을 기록해 서울 의료에 대한 몽골 현지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.
 - 건강상담회에는 총 5개의 병원(▲서울아산병원 ▲신세계서울병원 ▲강남센트럴안과 ▲강남아이원스안과 ▲KMI한국의학연구소)이 참여해 몽골 현지 환자들에게 의료 나눔을 실현했다.

- 상담회에 참여한 한 현지 환자는 “서울 의료관광 건강상담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.”라며, “최근에 네 살배기 아들이 몽골에서 자폐 진단을 받았는데 의료기술이 뛰어난 서울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싶으니 유명한 병원에 대한 소개를 받고 싶다.”라고 참여 계기를 밝혔다.

-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‘B2B(기업거래) 트래블마트’에서는 서울 의료관광 기업과 몽골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시가 만나 서울 의료관광 상품을 상호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으며, 총 95건의 상담실적을 달성했다.
 - 서울에서는 ▲서울아산병원(리브어게인) ▲신세계서울병원 ▲영등포구청(문화체육과) ▲KMI한국의학연구원 ▲대림성모병원 ▲이레마케팅 ▲제인DMC 코리아 ▲나누리병원 ▲디에이성형외과 ▲강남센트럴안과의원 ▲뷰성형외과 ▲이대부속병원 총 12개 사가 참가했으며, 몽골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시는 23개 사가 참여했다.

- 상담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는 “이번 상담회를 통해 서울 의료기술에 관심이 많은 몽골 현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, 앞으로도 현지 바이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서울의 의술과 기술력을 알리고 싶다.”라며 몽골 환자 유치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.

□ 6월 13일에는 현지 여행사, 의료기관,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‘2024 울란바토르 서울의료관광설명회’가 열려 서울의 우수한 의료기반과 함께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를 몽골 현지에 널리 소개하는 장이 펼쳐졌다.

□ 한편, 지난해 의료관광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한 몽골 환자는 약 1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60%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서울 의료관광의 주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.

(단위 : 명)

순위	국 적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	전년 대비 증감률
						환자수	비중	
1	일본	62,224	13,138	2,446	19,440	182,166	38.5%	837.1%
2	중국	115,392	18,926	15,050	24,196	82,510	17.4%	241.0%
3	미국	28,515	7,323	14,742	25,123	51,777	10.9%	106.1%
4	태국	7,435	3,886	3,918	15,842	27,714	5.9%	74.9%
5	몽골	11,546	3,562	5,957	9,780	15,727	3.3%	60.8%

<5개년도 국적별 서울 의료관광객 현황(출처:한국보건산업진흥원)>

□ 서울시는 의료관광 분야가 관광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고부가가치 사업 인 만큼 앞으로도 현지 상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서울 내 다국적 의료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.

□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“서울의 매력적인 의료관광 콘텐츠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마케팅을 통해 바이어 및 환자들과의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.”라며, “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등 다양한 국가에 현지 마케팅을 확대하여 다국적 의료관광객을 서울로 끌어들이겠다.”라고 포부를 밝혔다.

사진 1



울란바토르 의료관광설명회

사진 2



울란바토르 건강상담회(관절·척추과)